

극단 *SAY* 제14회 공연

그 女子의 숲 속에는 올빼미가 산다



제15회 부산여극제 “대상” 수상작

.....그 여자의 숲속에는 올빼미가 산다.....

제15회 부산 연극제 대상수상

- 희곡상 : 하창길
- 연출상 : 허영길
- 최우수 남자 연기상 : 문우성
- 신인 여자 연기상 : 이현미

■ 제15회 전국 연극제 참가

- 일시 : 1997. 4. 27~28
- 장소 : 부산시민회관 소극장



서민整形外科 醫院

院長 許元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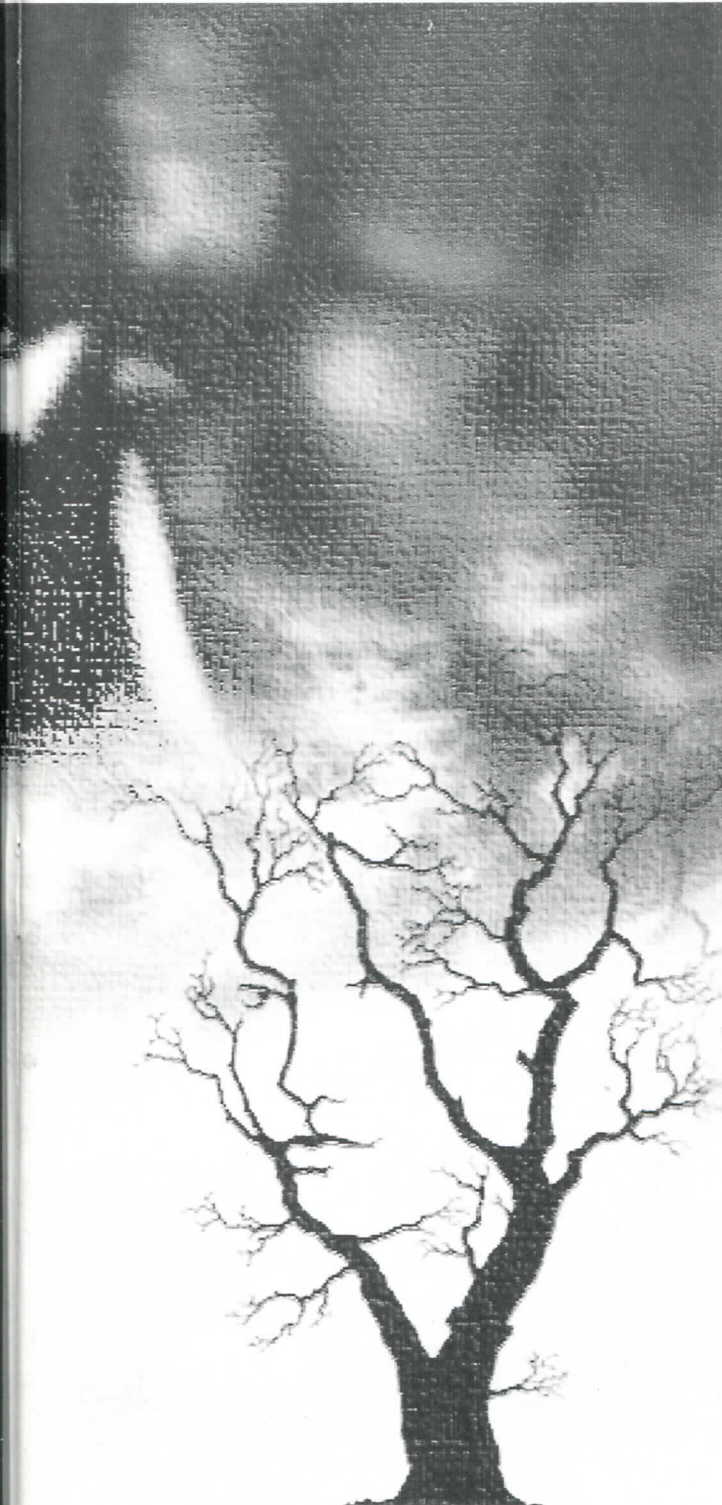
釜山廣域市 南區 龍翹1洞 370의 8
代表電話 : (051) 621-7890



.....그 여자의 숲속에는 올빼미가 산다

극단 SAY 제14회 공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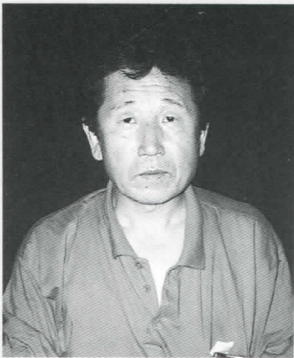
그 여자의 숲속에는
올빼미가 산다.



- 작 / 하 창 길
- 연출 / 허 영 길
- 음악작곡 / 박 철 흥
- 미술 / 조 석 진
- 조명 / 강 원 길
- 무대감독 / 김 학 지
- 조연출 / 황 숙 희

1997. 3. 20 ~ 4. 13

.....그 여자의 숲속에는 올빼미가 산다



마음의 문을 열때를 위하여 . . .

연출 / 허영길

창녀 출신의 한 여인의 정신세계를 통하여 현대인들의 다중인격성을 고발하며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복잡한 의식 구조를 표현하고자 했으며,

외형적인 수식을 벗어버리고 인간과 인간의 진정한 만남을 통하여 인간의 근본 본질(본능)과 神이 선사한 맑은 영혼들이 살아 숨쉬는 것에 믿음을 표출 하고자 했다.

2년전 초연때보다 희곡을 많이 다듬어 주신 하창길 선생님께 깊은 감사드리며,

하루의 연습을 마칠때마다 들려오는 소리 “마음의 문을 열지 않는 한 나도 사실은 다중인격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에 지나지 않는다는 느낌입니다.....”가 항상 마음을 무겁게 해 주었는데 이 무거운 마음을 위하여 열심히 연습에 임해준 단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단원들의 노력의 결과로 제15회 부산연극제에서 대상과 최우수남자 연기상, 여자신인 연기상, 희곡상, 연출상등을 수상하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기쁨에 만족치 않고 4월말 부산에서 열리는 제15회 전국연극제에서 더좋은 결과를 얻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 할 것이며 부산의 여러 연극인들과 관객 여러분들의 많은 충고를 겸허히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극단 SAY 대표



절망의 목소리를 넘어 . . .

극작가 / 하 창 길

이 작품은 다중인격질환이라는 병에 걸린 한국인 고아 출신의 미국 입양아인 한 소녀에게서 일어났던 실제의 일을 토대하여 씌여진 글이다. 그녀에게는 무려 36개의 다른 인격이 있음이 판명이 되어 전미국을 놀라게 한 사건이 있었다. 사람에게는 두 가지의 기본적인 흐름, 지킬과 하이드라는 두 욕망이 싸우는 흐름이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한 인간에게 무려 36개라는 다른 인격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나에게 매우 충격적인 사실로 받아들여졌다. 그녀는 먼저 부모에게서 버림을 받고, 한국에서도 입양이 거부되어 미국인 가정에 입양이 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그녀의 미국인 양아버지가 그녀가 보는 앞에서 교통사고로 죽는 현장을 목격하고 다른 인격으로 변화되는 과정을 격었음이 밝혀졌다고 한다.

나는 그녀의 문제가 마음 속에서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는 그녀의 인격을 포기할 수 없었다. 그녀가 그렇게 다양한 인격적인 변신을 보인 것이 늘 버림 받은 그녀로 누구에게나 사랑받고 싶은 욕망에서 기인한 사실임을 나는 확신할 수 있었다. 실제로 그녀의 사건이 밝혀진 것은 법정에서였는데, 그녀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미국인 청년은 사실은 다른 인격의 그녀와 만나서 사랑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의 다중인격은 다른 사람에게 사랑 받고 싶다는 사랑의 갈구가 그 원인이었다. 다른 사람에게 사랑받고 싶다는 갈망, 인간이 가진 갈망중 사랑 받고 싶은 갈망처럼 큰 것이 또 있을까. 나는 비로소 그녀의 상태를 어느 정도 이해하게 되었다.

그리고 오래전에 이 사건을 작품화하면서 인간성 속에 그래도 죽지 않고 살아있는 그녀의 사랑에 대한 갈망을 보고 나는 불현듯 하나님이 살아 있다는 결론을 내렸었다. 그리고 오랜 세월이 흐른 후, 내가 크리스찬이 되고 또 허영길 선생님과 다시 이 작품을 작업하면서, 또 배역을 맡은 배우들과의 많은 토의와 도움으로 작품은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나게 되었다. 나는 그 과정에서 깊이 관여하시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느낄 수가 있었다.

우리는 인간의 인간됨을 포기할 수 없다. 우리들 속에서 절망의 목소리 너머 그래도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며 들려오는 소리가 있음을 나는 안다. 이 작품이 그 소리에 응답하는 작은 계기가 되길 진심으로 바란다.

.....그 여자의 숲속에는 올빼미가 산다

작품내용

주인공 마리아는 그녀가 다니는 성당에 속한 고아원의 아이들 중 한 아이를 교살한 혐의로 체포되어 재판도중에 다중 인격을 지닌 정신병자라는 점이 밝혀져 정신병원에서 요양 받고 있는 여자다. 그런데 그녀의 담당 의사는 그녀의 정신 병력을 통해 그녀의 내면에 다양하고 추악한 얼굴 외에도 너무 성스러운 면을 발견하는 동시에 그녀의 살인 동기가 너무 희박하다고 느끼고 그녀의 주변 인물을 모아 연극을 재판극 양식의 연극으로 공연하게 된다. 이 재판극 공연 과정을 통해, 그녀의 다중 인격이 다시 재현되고 의사가 혐의를 주고 있는 인물들과 그녀와의 관계가 하나씩 드러난다. 그리고 다중 인격이라는 그녀를 둘러싸고 있는 인물들의 내부에 잠자고 있는 다른 인격도 폭로된다. 그리고 실제 살인범은 그녀가 기거하는 여관의 일하는 여자로 밝혀지고 그 여자 또한 그 무대를 통해 자신이 범죄자임을 자신도 모르게 고백하는 무대였음도 밝혀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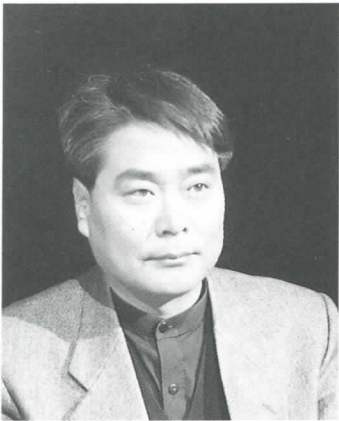
이 작품은 실제로 미국에서 있었던 한 교민 여자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그녀는 다중 인격 질환이란 한 인간의 인격이 여러 다른 인격으로 변화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아주 희귀한 정신병으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듯이 한 인간의 영혼 속에 존재한다는 사실은 무척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리고 어떤 인간이라도 가장 깊은 곳에 존재한 내밀한 자아와 닿아 있는 존재의 근원인 신과 이어져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마리아/이현미

.....그 여자의 숲속에는 올빼미가 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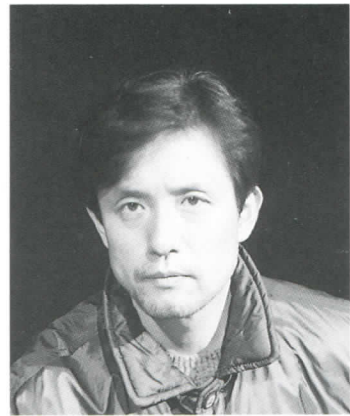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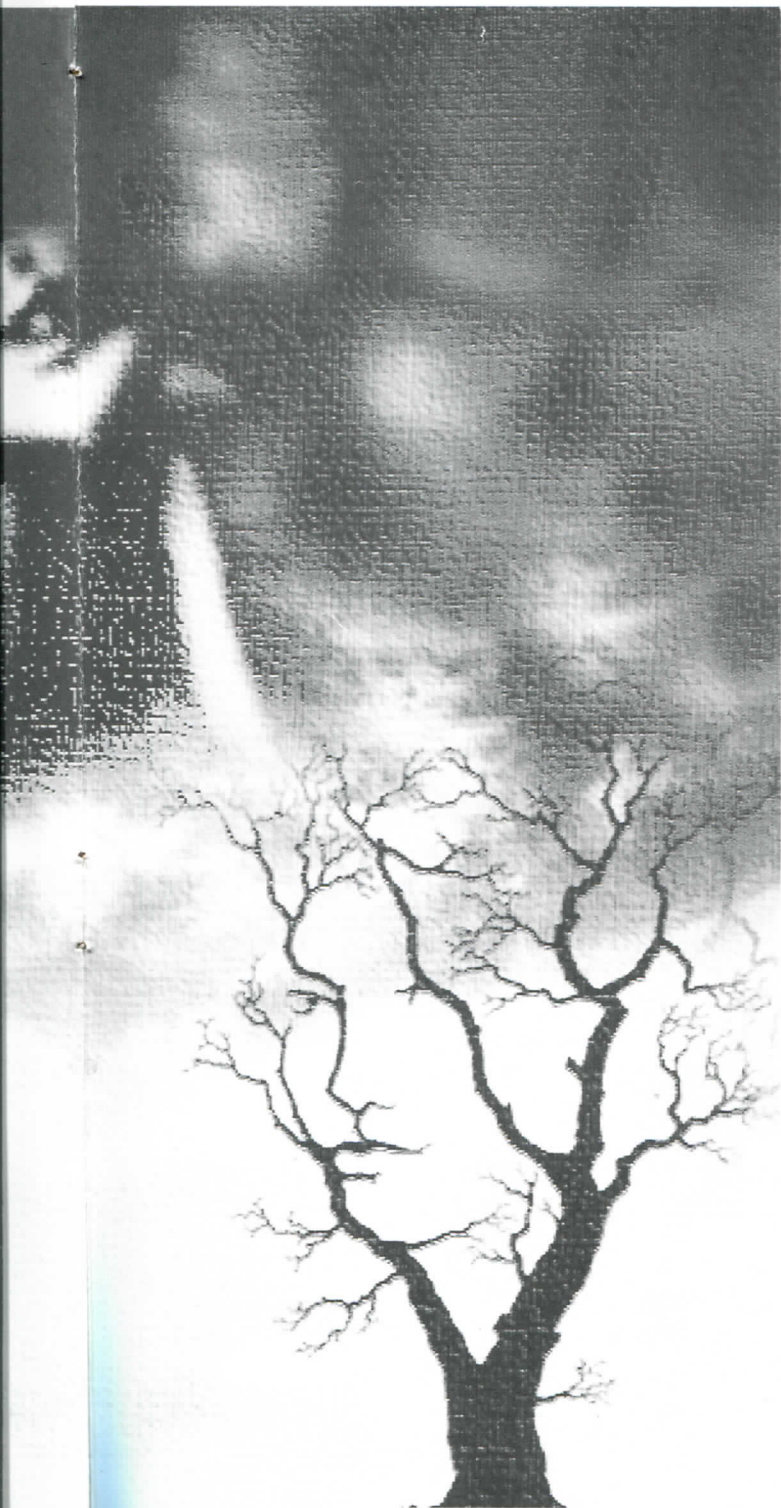
의사 / 박 찬 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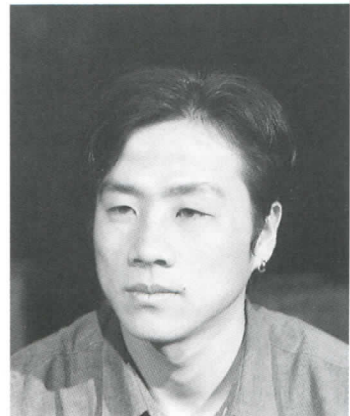
김옥자 / 임해련



.....그 여자의 숲속에는 올빼미가 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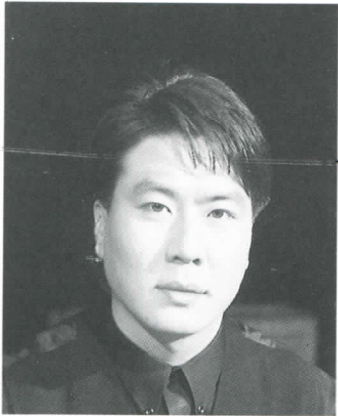


신부 / 최시영



검사 / 주경대

.....그 여자의 숲속에는 올빼미가 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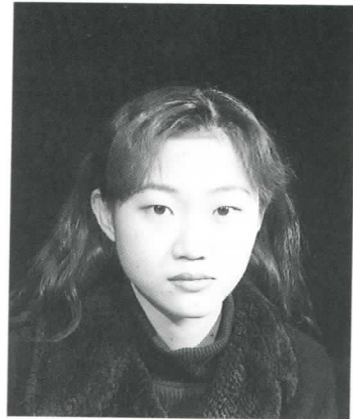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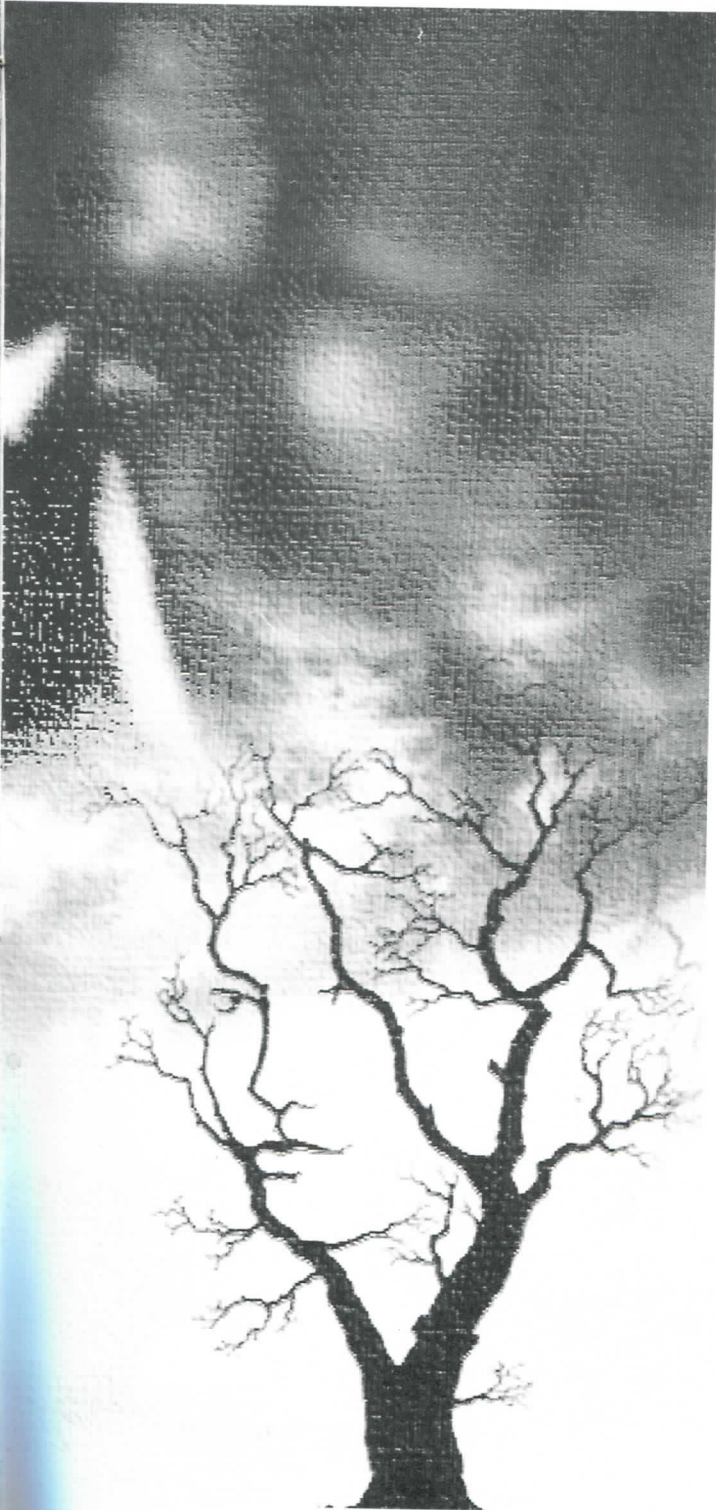
남자 / 문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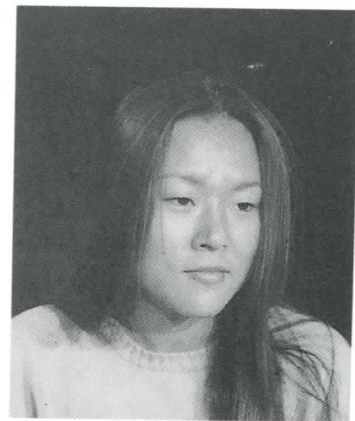
재판장 / 어주선



.....그 여자의 숲속에는 올빼미가 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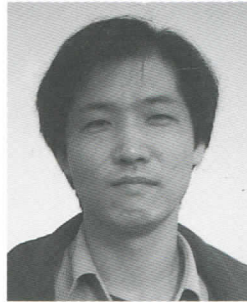


테레사수녀 / 어혜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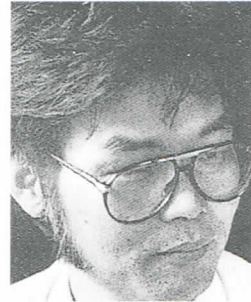


김말분 / 최연우

.....그 여자의 숲속에는 올빼미가 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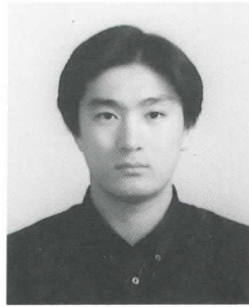
기획 / 김 만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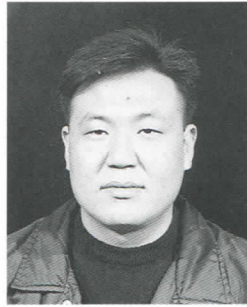
작곡 / 박 철 홍



미술 / 조 석 진



조명 / 강 원 길



무대감독 / 김 학 지



조연출 / 황 숙 희

극단 SAY 공연보

회	작 품 명	작 가	연 출	일 시	장 소	회	작 품 명	작 가	연 출	일 시	장 소
1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	테네시 윌리엄스	이동자	92 7 17~8 16	SAY 소극장	8	보잉보잉	마르코 까울리티 베닐레이크로스	허영길	95 9 28~10 8	SAY 소극장
2	꽃피는 체리	로버트 볼트	허 은	92 10 22~11 29	SAY 소극장	9	그 여자 숲속에는 올빼미가 산다	하 창 길	허영길	95 12 15~12 31	SAY 소극장
3	고도를 기다리며	사무엘 베케트	김준기	93 3 17~4 5	SAY 소극장	10	호모세파리투스 (제 14회 부산연극제)	이 강 백	김만중	96 4 13~4 15	부산시민회관
4	깊은 밤까지	이 동 채	이동채	93 7 10~7 31	SAY 소극장	11	미술가계	이 상 범	허영길	96 7 2~7 28	SAY 소극장
5	쥐 닷	이카시 크리스티	김상교	93 8 10~8 29	SAY 소극장	12	남자길들이기 (제 19회 부산연극제)	브레히트	김만중	96 10 19~10 21	부산시민회관
6	미술가계	이상범	허영길	94 7 29~9 21	SAY 소극장		남자 길들이기	브레히트	김만중	96 11 7~12 8	SAY 소극장
7	이혼의 조건 (제 13회 부산연극제)	윤대성	허영길	95 4 30~5 1	부산문화회관	13	홍당무	쥘 르나르	허영길	96 12 16~12 18	부산시민회관
	이혼의 조건 (제 13회 부산연극제)	윤대성	허영길	96 5 26~6 18	SAY 소극장	14	그 여자 숲속에는 올빼미가 산다	하 창 길	허영길	7 3 1~2	부산시민회관

CF 모델

예

PSB부
「드라마

PSB부
다양한

심

중영

작가 박
PD 차성
PD 김재

■ 우수 할
"중앙기
우선 출

■ 평생 매
수 있으

■ 모집분

■ 자 격

■ 점 수 처

■ 문 의

부산에서는

문의전화